

제43회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일정

차수	기간	모집인원	대상
1	2013년 7월 20일(토) ~ 7월 24일(수)	80명	성인 (일반수련)
2	2013년 7월 27일(토) ~ 7월 31일(수)	80명	성인 (일반수련)
3	2013년 8월 3일(토) ~ 8월 7일(수)	80명	성인 (선수련)
4	2013년 8월 10일(토) ~ 8월 14일(수)	80명	성인 (선수련)

※ 신청기간 : 6월 15일 ~ 완료시까지

모집요강

가) 신청대상

- 수련법회 신청대상 : 1차 ~ 4차 : 20세 이상 수련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성인 남·여
- 동참금 : 15만원
- 중고생과 초등생 수련법회는 송광사 사정상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 일반수련, 선수련 모두 일·월·화요일은 오후불식을 합니다.
- 선수련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 선발하여 정진에 몰두하는 선 전문 수련법회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신 후 이메일 moo1970@hanmail.net 및 팩스 061-755-0408로 신청바랍니다. (전화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다) 동참자 선발 기준

-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고 아래 계좌로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선착순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드시 참가하는 차수와 본인 성명(예: 1차 홍길동)으로 입금하고, 신청서와 입금이 확인되면 참가자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이상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고, 신청 후 3일 후에도 입금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불참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불참하면, 동참금은 환불해 드리지 않고 수련법회 보시금으로 접수되며 대응보전에서 축원해드립니다.
- 1차~4차(성인,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351-0479-3747-43 (송광사)

라) 문의 및 접수처

- 전 화 _ (061) 755-0107 ~ 9 (09:00 ~ 17:30까지만 가능), 팩 스 _ (061) 755-0408
- 홈페이지_ <http://www.songgwangsa.org>
- 이 메 일_ moo1970@hanmail.net





마음자리



용상 龍象

용龍은 물 속의 우두머리요, 코끼리象는 물 위의 수령이니 용상龍象은 천하를 아우르는 영장의 표상이다.

생사를 벗는 일대사에 투신한 출격장부들은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용상들이다. 청정도량에서 열반을 향해 정진하는 대중의 명단을 그래서 '용상방龍象榜'이라 일컫는다.

범일묵적 梵日墨跡 조계총림 송광사의 방장이신 범일 보성 큰스님의 글씨를 통해 전해지는 감동을 함께하고자 한다.

승 보 종 찰 조 계 총 립

松 廣 寺

송 광 사 www.songgwangsa.org

월간「송광사」· 불기 2557년 7월호 통권 148호 · 2013년 7월 1일 발행 · 등록일자 / 2001년 9월 19일 · 등록번호 / 전남 라 00054

02	주장자	지옥·극락, 내가 만드는 것
04	목우현에서	귀함과 천함은 행위로 나뉜다
06	특집	송광사 여름 수련법회
12	보림의 숲	지붕이 성글면 비가 새고...
14	법성료	오욕락에 빠지면 괴로움 원인도 잊어버려
16	인물탐방	'2013 무안연꽃축제' 준비위원장 대홍사 주지 범각스님
18	역사잡기	불일보조국사 감로탑
21	선화한잎	명상의 나무
22	교구 성보문화재를 찾아서	광주 무등산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24	화보	먼지를 쓸고 때를 닦으라
26	경전속 식물 이야기	스님이 향하는 곳에는 언제나 토굴과 소나무가 있었다
28	송광사 벽화 이야기	승보전 벽화_ 수선사 정진
29	초청법문	아침에 발원하고 저녁에 참회하는 생활...
32	에세이 지눌	팔공산 거조암에서 (1)_ 정혜결사의 첫 걸음
36	고향수	신 즈음에
38	포커스 I	송광사 문화재 관리 및 사찰 종합정비를 위한 간담회
40	포커스 II	보림사 원표대사 학술세미나
42	송광사 소식	교구본사 / 교구말사
45	송광사 소식	성보박물관 / 우석어린이집
48	사천왕 개체불사 동참자 및 인등회원 명단	



표지: 김 태 성
NEWS1 기자
전 광주드림 기자
전 전라도닷컴 기자

발행처 / 승보종찰 송 광 사
540-933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 안길 100
중무소 / 전화 061) 755-0107-9
팩스 061) 755-0408

발행인 겸 편집인 / 무상
주간 겸 편집장 / 도현
편집교문 / 도일 도암 중현
편집위원 / 강행복 김다빈 김일동 김태성 이준엽
편집디자인 / 호남문화원 062-383-3538

시원한 숲바람 그늘 아래,
스님들과 함께 하는 Templestay.

지옥·극락, 내가 만드는 것

범일 보성 梵日 菩成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행무상 시생멸법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모두 무상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무상을 벗어나 살고 있

지 않습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적멸이 위락이라 하였습니다. 생멸멸이란 모든 인연을 쉬는 것,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여기에 끄달리고 저기에 끄달리는 것을 헐떡거

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미용일을 하는 아주머니가 소를 키워 청도 소싸움에 내보냈습니다. 여자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 소가 달리다가도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소를 부르면 소가 달려와서 앞다리를 들라고 하면 앞다리를 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저렇게 길들일 수 있겠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소 엉덩이를 보니 오물 하나 묻어있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아마도 여름철에도 모기가 오지 못하게 모기장을 쳐서 키울 겁니다. 소가 어찌다가 싸움에서 지더라도 “오늘 잘 싸웠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 하면 소가 말귀를 알아듣는지 머리를 끄덕거립니다. 하루 이틀 공들인 게 아닙니다.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을 하려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버드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한국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우하게도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했지만 인덕이 있는지 어떤 여교사를 만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여교사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알뜰하게 돌봐주어 이 청년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전액 면제를 받고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부모 덕은 못 봐도 교사가 좋은 인연이 되어서 저렇게 부모 노릇을 잘해줘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청년은 ‘내가 불우하게 될 건데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인가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 힘으

로, 나아가서는 대자연의 힘을 빌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안일함이라는 제일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천강유수 천강월’, 저 허공에 떠있는 달은 하나지만 강물마다 달이 떠 있어 누구든지 그릇에 상관없이 부처님의 은혜를 얻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리무운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 모두 같이 한 하늘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천상천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 따라서 한 가지라도 간절하게 실천하다보면 다른 것도 따라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도 나태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만 이뤄지면 오늘 5월 초하루법문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자, 합장하세요.

간절히 남을 따라 찾지 말라.
점점 나하고 멀어간다.
지금 내가 스스로 가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 구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습니다. 지옥도 극락도 내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내 자신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신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당당한 불자입니다. ☸

귀함과 천함은 행위로 나뉜다

무상 無想 |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하안거 정진에 들어간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위와 장마에도 자기의 자리에서 무심히 정진하시는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월 22일 ‘송광사 보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사찰 종합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송광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여기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7월 중 가장 큰 행사로는 단연 수련법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43번째를 맞이하는 수련법회도 변함없이 지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행위의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 그 사람의 귀함과 천함이 나누어지고,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인지 후회만 남는 삶인지가 결정됩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다면 점점 귀해질 것이고,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다면 점점 타락하고 천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라 하시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숫타니파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심도 체면도 모르고 되는대로 사는 인생이 순간은 편리하고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후회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는 후회될 일이 없는 여러 가지 공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당연함’과 ‘물론’의 길들여짐에 빠져 노예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막아주는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가치 있는 삶[성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그동안 구겨진 채 방치되었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찾아 돌아가볼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편하고 즐겁다고 해서 쉽게 빠져들지 말고, 그것이 나를 버리는 것 아닌가? 잘 살펴볼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대장장이가 은銀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 씩 하나 씩 점차로 자기의 부정不淨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의 악행은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먹어들어 가듯이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 법구경

아주 작은 악이 쌓이고 쌓이면 자신을 파멸시키는 엄청난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악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백수의 제왕이라는 사자는 다른 동물에 의해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조그만 해충 때문에 죽습니다. 수은은 아주 미량을 섭취하지만 체내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온 몸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또한 작은 선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힘써 행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커다란 바다가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선행들이 모이고 모이면 가치 있는 삶의 물결이 출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 계의 갑옷을 입고, 계를 거울삼고 스승으로 삼아서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성불하십시오. ☸

참 나를 찾아서... 출가 4박 5일 43년

- 송광사 여름수련법회를 돌아보며...



◇ 1978년 법정스님과 수련회참가자들

송광사 여름수련법회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생활에서 쌓이는 심신의 피로를 공해가 없는 산사에서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600여 명이 찾아와 '참 나를 찾는 수행'을 하고 돌아간다. 송광사가 승보사찰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재가불자를 위한 수련법회'를 전국 사찰 가운데 최초로 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올해로 벌써 4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송광사 여름 수련법회가 지나온 길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송광사 수련법회가 걸어온 길

송광사 여름수련법회는 지난 1971년 당시 조계 총림 방장이신 구산스님이 '수련원'이라는 별도 기구를 설립해 처음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과 같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고, 각 신도 단체를 대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지도법사들이 생활지도하는 정도에 그치다가 1984년 법정 스님이 수련원장을 맡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와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이때는 방장스님조차도 수련생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보고 자리에 들 정도로 사중에서 여름수련법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매년 7월과 8월, 4박 5일 6~7차수에 걸쳐 열리는 수련회 연 참가인원은 평균 500여 명 이상으로 불자는 물론 타 종교인들에게 까지 큰 호응을 받아왔다. 송광사 수련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뒤 웬만한 큰 사찰들은 거의 여름철 선 수련회를 실시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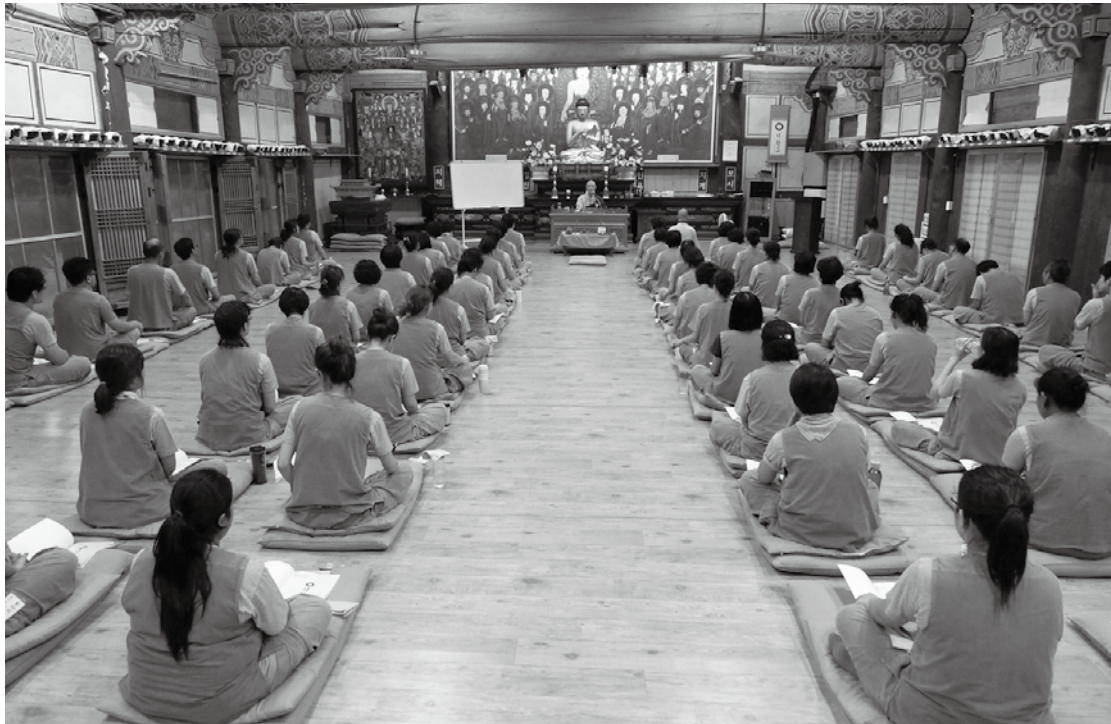
매회 1백명의 수련생 선발 과정에 있어서 초기

에는 선착순으로 선발하다가 신청자가 증가하고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련법회를 운영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통해 수련생을 선발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몇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수련 기회가 주어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으며 수련 기회를 얻기 위해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되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다고 한다.

여름수련법회의 공식 명칭은 <참 나를 찾아서> 또는 <출가 4박 5일>인데 타 사찰과 달리 '수련회' 또는 '수련대회'라 하지 않고 '수련법회'라 부르는 것은 이 행사가 단순한 수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선수행과 더불어 사중의 어른스님들이 여름수련회에 적극 동참하여 불교교리와 경전 강의를 직접 맡아 수련생들이 보다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처럼 송광사 여름수련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승보사찰로서 예부터 면면히 내려오는 수행가풍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긴 여름수련회 역사를 가지며 오늘날 43회째 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43회 수련회 이모저모

송광사 여름수련법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예불, 묵언, 차수(차手), 발우공양, 좌선, 차 한 잔을 나누며, 철야 용맹정진, 수계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예불은 반드시 대웅보전에서 전 대중과 함께 하며, 전통 불교의 장엄하고 엄숙한 예불의식을 통하여 수련생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묵언은 잡담으로 인한 소음에서 벗어나 정신의 산란함을 없애고 평소 밖으로 향하던 자신을 돌이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말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탓에 이런 묵언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차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자칫 어질러지기 쉬운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데, 출가자는 먼저 자존심을 버리고 하심(下心)하는 마음부터 배워야하기 때문이다.

발우공양은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산업사회의 여러 병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책으로 꼽고 있는 불교만의 오랜 전통이다.

또한 송광사에서는 ‘오후불식’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2012년 수련회에서는 400여 명의 수련생들이 저녁 먹을 쌀을 아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나눔의 쌀’로 전달한 바 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정혜결사를 일으키고 당시 중국 선(禪)을 답습하던 풍토를 고쳐 새로운 한국 선(禪)을 확립하여 펼친 정혜결사

도량이다. 따라서 수련기간 중 좌선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있다. 특히 유경험자들을 우선 선발하는 3,4차 선수련회는 매일 8시간씩 참선수행을 하며, 더불어 2시간동안 갖는 ‘선(禪)강의’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는 최근 들어 다른 사찰들이 앞 다투어 이색적인 수련회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과는 사뭇 다른 수련회 운영이다.

차 한 잔을 나누며 시간에는 저녁예불을 마친 후 용맹정진에 들어가기 전 며칠 동안의 묵언을 잠시 트고 차를 마시며 수련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1부에서는 참가자 중 몇몇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간단한 소감을 들으며, 2부에서는 그 동안의 강의 때 수련생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내용들을 질문지를 통하여 강사스님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밤에는 수련법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철야 용맹정진을 한다. 체력이 상당히 요구되지만 마치고 나면 수련생들에게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밤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며 다음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밝은 얼굴을 대할 수 있다.

철야정진을 마치고 아침공양 후엔 수계식을 한다. 종교가 달라서 불명을 받지 않더라도 의식에는 모두 참석해야 하며, 삼귀의와 오계를 지키겠다는 서약과 연비를 한 후 불명을 받는다.

송광사 여름수련회는 해마다 목사나 신부 등 타종교 성직자들도 찾아올 정도로 인기만점의 여름수련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보조국사 등 16국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사들이 해탈을 위해 정진했던 승보종찰(僧寶宗刹) 송광사에서 참선정진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매력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

송광사 수련 5계

〈제 1계〉 투철한 출가정신으로 임하자 : 여름수련법회에 동참한 수련생들은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것은 출가자 못지않은 투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2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자 : 수련 청구는 제대로 지키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 억지로 하는 것은 고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제 3계〉 지도법사를 은사로 받들자 : 수련생들은 지도하는 법사스님의 말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지도법사 스님에게서 하나라도 더 배워 가겠다는 적극적이고 순응적인 자세를 가져야 단기출가한 보람을 알차게 누릴 것이다..

〈제 4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배워가자 : 이것저것 두루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 내게 걸맞는 것 하나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야말로 단기출가에 가장 성공한 사람일 것이다.

〈제 5계〉 인연을 소중히 여기자 : 수련법회를 회향하고 하산하는 것으로 수련생들의 한 철 인연이 다한 것이 아니다. 이 시연을 소중히 여겨 다른 선연으로 이어가면 얼마나 좋은가.

내 속에서 흐르던 물의 소리

이강욱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차 한잔을 나누며’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져 철야정진은 밤 11시경에야 시작되었다. 마지막 참선을 알리는 죽비 소리가 편안하게 들렸다.

오늘 밤만 지나면 돌아간다. 돌아가는 게 기다려지는 하지만, 돌아가는 것이 이곳의 모든 것과 결별하거나 저곳의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으니 마냥 설레지는 않았다.

눈꺼풀을 내려 가니 방바닥에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았다. 이윽고 나비 형상이 나타나다가 부처님 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마침내 담박한 무채색 벽이 생겨나 시야를 막아주었다. 벽은 120명 곁에 있는 내가 적막강산에 홀로 있는 듯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었다.

고요 속에서 꽤 긴 시간이 지나갔다. 4일 간의 일들이, 4일 간 떠올려진 나의 과거가 스쳐갔다. 아니, 내가 그런 상들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이

자각되었다. 그리고는 ‘자, 이제 그만’ 하며 나를 선정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적당하게 선정을 경험하고 가뿐하게 마지막 참선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뒤로도 꽤 긴 시간이 흘렀다. 끝낼 시간이 훨씬 지났는 것 같은데도 죽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지도법사가 졸고 계신가. 내가 소리를 못 들은 것일까.

반가부좌한 오른쪽 발목이 저려 오더니 오른 발 전체가 저렸다. 저림은 통증으로 변했다. 그로부터 몇 십분이 더 지난 듯 하니 왼발에도 통증이 느껴졌다. 오른 발 왼 발이 꺾여지는 듯 잘려 나가는 듯 아팠다. 아, 미칠 것 같은 이 통증이 뭐람. 차라리 발을 뺏어 버리자. 그러나 그 래선 안된다는 질책이 내 속에서 일어났다. 지금까지 잘 견뎠는데 마지막 참선에서 흐트러져서



는 안되지. 갈 때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다독거렸다.

그때 ‘내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육신에 이끌려 가서는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며 선사들의 가르침을 생각했다.

그래, 내 육신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발은 실체가 아니다. 육신도 그 육신의 통증조차도 환상이요 환각이다. 육신의 통증은 실재하는 아픔이 아니다. 나는 통증이 있는 듯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내 육신의 주인인 참 나를 보자.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는 나는 여전히 환각에 집착해 있는 것이다. 이 통증을 훌훌 벗어 던지는 순간 나는 성큼 참나의 경지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추스렸다.

그러니 통증이 약해지는 듯했다. 얼마 뒤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더니 통증이 사라졌다.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약간 올렷대는 진동이 가슴에서 느껴졌다. 머리 속이

환해지고 띠 모양의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나는 그 빛 기둥을 따라 올라가는 듯했다. 환희심이 샘솟았다. 내가 천상 세계로 올라가고 있다고 나에게 되뇌었다.

나는 그 거대한 세계의 흐름에 나의 모두를 내맡겨 버렸다. 그렇게 얼마쯤 흘렀을까. ‘딱’ 죽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천상 세계의 경험이 꿈결이었을까. 지도법사가 말했다.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죠?”

그때까지의 정진은 대체로 20분 참선 뒤 10분 휴식을 하였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정진에서는 알려 주지도 않고 시간을 몇 배로 늘인 것이었다. 근기가 약한 수련생들은 통증을 이기지 못해 발을 뺏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지극한 육신의 고통 끝에 이런 경지를 경험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송광사 수련회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것으로 참선의 경지를 비약시켜 주는 비법인 것 같았다.

지붕이 성글면 비가 새고...

일선 | 장흥 보림사 주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장마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에 올라가서 절의 수원지를 점검하고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물길의 흐름을 새롭게 했습니다. 도랑 내에는 비바람에 대비해서 여러모로 단속을 여물게 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지붕이 성글면 비가 새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번뇌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게으른 사람들은 큰 일이 닥쳐오면 미리 대비 하지 못한 까닭에 변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사에 닥쳐오는 길흉화복이란 결국에는 어느 신의 작용이 아니라 이렇게 미쳐 살피고 대비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비롯됩니다. 더구나 수행하는 사람은 생사대사라는 큰일을 닦쳐서 비로소 그간의 살림살이가 드러난다고 했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

지런히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유훈이 큰 경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치도 빈틈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대상을 놓치면 안됩니다. 한 생각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생사윤회의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끝없이 돌이키는 회광반조를 통해서 한 생각 일어나기 전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한편 생각이란 뜨거운 불기운이라서 끝없이 부딪치면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생각을 성품으로 돌이킬지언정 없애려고 싸우면 안됩니다. 또한 몸에서 일어나는 답다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바로 돌이키면 청량한 세계가 현전하니 올 여름 피서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감각을 놓치지 말고 바로 알아차려서

‘이것이 무엇이고’ 하는 의정으로 돌이켜 회광반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념법을 닦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선지식이여 무념법을 깨달으면 만 가지 법에 통하게 되며, 무념법을 깨달으면 일체 부처님들의 경계를 보게 되고, 무념법을 깨달으면 부처님 지위에 오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따라가지 말고 ‘이 무엇이고’ 라고 되물으면 번뇌망념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문득 청량한 세계가 바로 눈앞에 현전하며 무념의 대해탈경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간화선 수행의 요체입니다.

올 여름은 더욱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앞에 닥쳐오는 생사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간절하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심은 본래 텅 비어 있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고 본무생사인 성품이 울연히 현전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곧 생사즉 열반이라서 부사의 해탈경계를 이룹니다.

산창에는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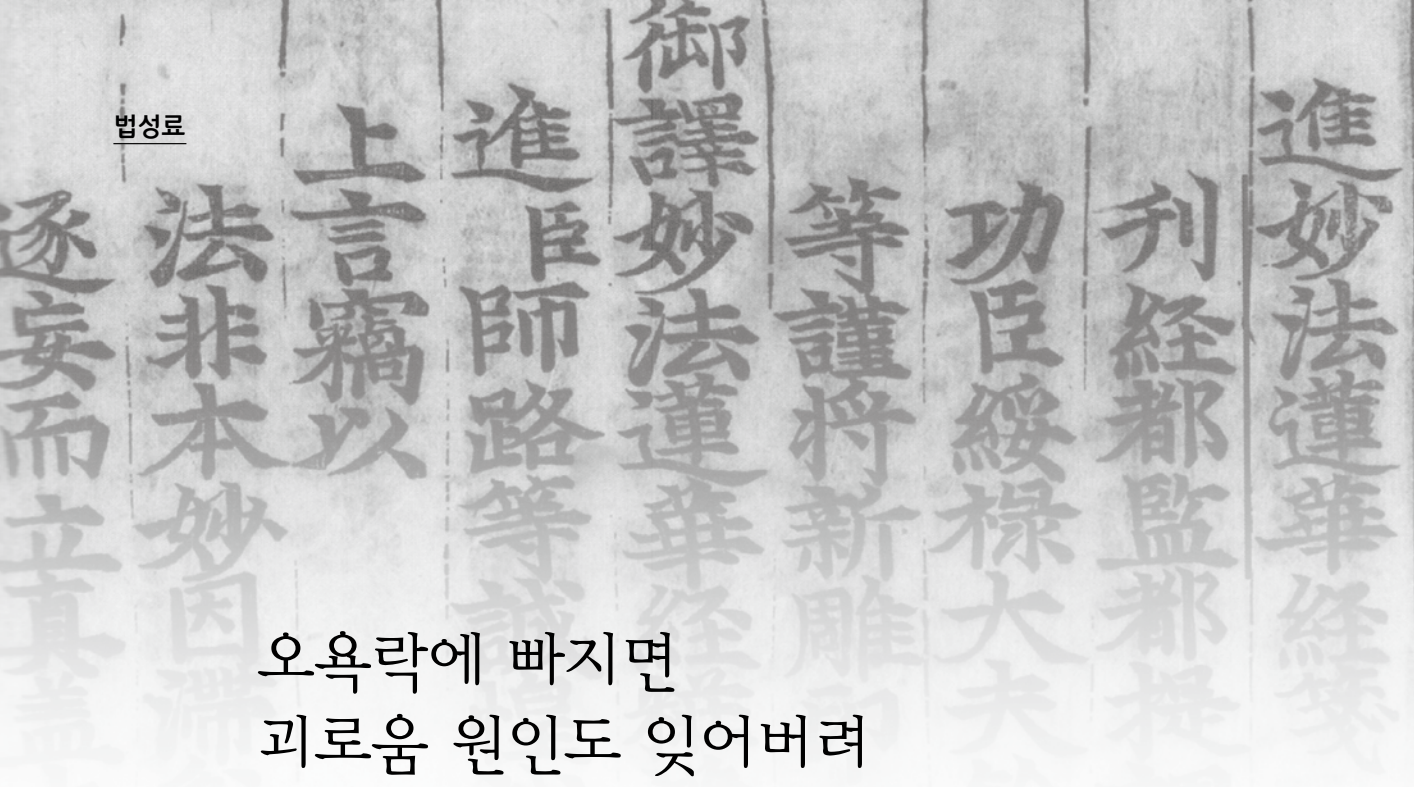
지난봄부터 시작한 대응보전 기와불사를 원만하게 마치고 나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비는 적광토에 내리고 산하대지는 온통 푸름으로 넘실거립니다.

장마철 건강하십시오. ☺

일선스님

1980년 송광사에서 법흥스님을 은사로 수계. 1987년 범어사에서 비구계 수지 후 10여 년 간 제방선원에서 정진. 중앙승가대 졸업. 송광사 수련회 지도법사 10여 년. 거금도 송광암 주지, 금천선원장 역임. 현재 장흥 보림사 주지.





오욕락에 빠지면 괴로움 원인도 잊어버려

- 법화경 이야기 열한 번째

도암 | 송광사 강주

부처님의 법은 넓고 깊어서 모두를 다 배우기는 어렵다. 전체의 일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중생의 근기에 비해 부처님의 법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렵다. 대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감명을 받으면, 그것만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라고 집착하기 쉽다. 자기의 근기에 따른 주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승경전의 정화인 법화경에는 비유가 일곱 번 나온다. 비유를 사용해 부처님 일대시교의 내용을 한눈에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부처님의 교화설법의 목표와 방향성을 알아차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비유품의 비유는 부처님이 중생의 수준에 따라 쓰는 방편이 다르지만 그 목표와 방향성은 일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법화경 비유품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자.

“사리불아, 장자는 또 생각하였다. ‘나는 기운이 세니 옷 담은 상자나 책궤 따위에 담아 들고 나오리라.’ 그리고는 다시 생각하였다. ‘이 집의 문은 단 하나뿐으로 매우 좁아서 소견 없고 장난을 좋아하는 어린것들이 혹 땅에 넘어져 불에 타지나 않을까? 그러므로 내가 그 어린것들한테 이 집이 한창 불에 타고 있어 무섭다는 말을 일러 주고, 지금 빨리 뛰어나오지 아

니하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하리라.’ 이와 같이 생각한 장자는 그 여러 자식들한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애가 타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달랬지만, 그 어린 자식들은 장난에만 정신이 팔려서 믿지도 않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여 나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또 불이 어떤 것이며 집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동서로 내달리고 놀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사리불아 ... 매우 좁아서’의 내용은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는 방법을 꼼꼼이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비유는 부처님이 성도하고 나서 21일 동안 보리수 아래서 가르침을 퍼주기 위해 방법을 사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기운이 세니’라는 말은 여래의 지견과 심력과 무소의 등의 부처님만의 능력이 위대함을 말한다. ‘옷 담은 상자’는 비밀스런 작용을 말하니, 여래의 대 신통력을 비유한 것이다. ‘책궤’는 의지할만한 것이니 지혜력을 비유한 것이다.

‘이 집의 문은 단 하나뿐으로 매우 좁아서’는 범부나 이승의 근기는 그 마음의 경계가 낮아서 이 대승의 진실한 가르침인 높은 법문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편품 뒷부분에서 이르기까지 “만일 내가 신통력과 지혜력만을 쓰면서 여래지견과 심력 무소의를 찬탄한다면, 중생들이 이 법으로는 교화될 수 없는 까닭에 오직 방편만으로 구제하였다”고

하였다. ‘소견 없고 ...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다’는 그 어린 자식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을 염려하면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분명하게 알려주어, 안전하고 이익되는 곳을 알고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애가 타서 ...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는 중생들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때문에 미혹해져서, 비록 커다란 고통을 만나도 그것이 고통인줄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않는다. 고통을 주는 원인인 오욕락에 탐착하는 습관이 이미 깊어져서, 어느 것이 괴로움인지 어느 것이 괴로움의 근본인지 어느 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탐욕인지 알지 못한다.

자기에 대해서는 어둡고 바깥 경계만을 쫓아 불속으로 뛰어들면서 돌아올 줄 모른다. 비록 불법을 만났으나 그 가르침을 따라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뿐이다.

대개 중생들이 거대한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매 순간 상대적으로 달콤함을 느끼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순간순간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저 괴로움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런 중생들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

도암스님

1991년 통도사에서 월파스님을 은사로 출가. 통도사 승가대학, 동국대 철학과, 불교학과 졸업. 봉선사 능엄학림 졸업. 현재 송광사 강주.



무안연꽃축제를 세계적인 불교문화의 장으로...

-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6교구본사와 함께하는
'2013 무안연꽃축제' 준비위원장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



전남 무안 회산백련지는 동양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연꽃동네이다. 해마다 7월이면 파란 연잎의 바다위에 하얀색의 연꽃이 장관을 이루고 축제한마당이 펼쳐진다. 올해도 무안 회산백련지에서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에 걸쳐 '2013 무안연꽃축제'가 열린다. 특히 금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호남지역 6교구본사(김제 금산사,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순천 송광사, 해남 대흥사, 고창 선운사)가 힘을 모아 무안연꽃축제를 주관한다. 지역의 교구본사가 뜻을 모아 연꽃축제를 펼치게된 것은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2013 무안연꽃축제'에 앞서 호남 6교구본사를 대표해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에게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전국 최대 연꽃축제인 무안연꽃축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불교계가 주관했었지만 한동안 불교계가 외면되었습니다. 금년에 호남 6교구본사가 주최하게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무안 연꽃축제를 호남 6교구본사가 주최하게 된 것에 대한 의의와 소감은 무엇입니까?
 - 남도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이자 단일 연꽃축제로는 동양 최대인 무안연꽃축제를 호남의 6교구본사가 맡게된 것은 큰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철주 무안군수의 호남 6교구본사에 대한 각별한 요청으로 비롯된 무안연꽃축제를 통해 연꽃이 상징하는 불교적 가르침, 숭고함, 청정함을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전달하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3년 무안연꽃축제는 많은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연꽃축제 소개와 함께 불자들이 관심갖고 참여할 행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에 소재한 10만여평의 회산백련지는 우리 조상들이 피땀으로 축조한 농수공급용 저수지였던 곳으로 마을 주민들이 저수지 가장자리에 백련 12주를 심은 날 밤 꿈에 하늘에서 학12마리가 내려와 앉은 모습이 마치 백련이 핀 모습과 같아서 그날 이후 열과 성을 다해 가꾼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무안연꽃축제는 1997년 시작되었고 7월부터 백련이 피기 시작하여 3개월간 탐스런 꽃봉오리로 연못을 가득 채웁니다.

- 축제행사로는 개막식전공연, 불교문화행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스님 법문, 연꽃길 보트탐사, 농·수 특산물 홍보 전시판매, 향토음식관, 무안관광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연요리 경연대회와 인도 룬비니에서 채화한 도선사 평화의 불 점화식, 삼광사 초청 법회 등은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동참해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번 축제를 호남 불교계가 주관하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호남의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무안연꽃축제에 호남의 6교구본사 스님과 재가불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불교적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친지나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연꽃축제를 통한 호남불교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연꽃이 상징하는 불교의 진리를 다시금 상기하고 회산백련지 인근에 있는 초의선사생가, 송달산 법천사, 목우암 등 불교성지순례도 함께 하여 신심을 증장시키기를 기원합니다.
- '2013 무안연꽃축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일보조국사 감로탑

김일동 |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



◇ 1세 불일보조국사 감로탑

었이었을까? 물론 이 궁금증이 심오한 사고 끝에 나온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전제에서 나온 생각이니 말이다.

첫째는 승탑(사리탑)은 옮겨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둘째, 옮기는 것에 모든 대중들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간단하게 감로탑의 이동을 <조계산 송광사 사고曹溪山 松廣寺史庫>를 보면서 파악해 보자. 1210년 3월 27일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다비하여 수선사(송광사)의 북쪽 기슭에 세웠으나, 언제 보조암 뒤편 기슭으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원래 자리로 돌아 온 것은 성화13년(성종 8, 1477년) 4월 27일의 일이다. 당시 송광사 주지스님은 육정六正스님이었고, 옛 장소(현 관음전 뒤)로 옮겨졌다. 기록에 따르면 감로탑을 다시 옛 장소로 옮기고 법회를 열었는데 3일째 되는 날 대중들 앞에 ‘밝게 빛나는 방광放光이 나타나 보였는데 7~8리나 높이 치솟았다. 모든 대중들이 함께 기뻐하였는데 천세 후를 전할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

참 이상한 일이다. 송광사 창건 이래 최초·최대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고, 고려 불교의 정신적 지주였던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사리탑을 이리 저리 옮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

것이 첫 번째로 지눌스님의 승탑이 옮겨진 기록이다.

두 번째 옮겨진 기록을 보면 1687(강희 26)년 해문海文스님께서 고봉원(현 부도암 보조국사비 뒤쪽)으로 옮겼다. ‘사고’에 간략하게 그 원인을 적어 놓았는데 ‘절이 점점 쇠퇴하고 사람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이 입석(감로탑)이 이루어진 것이라 의아해 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비구大比도 해문海文 노숙老宿이 여러 승려들을 모집하여 3월 6일 국사설리탑(감로탑)을 고봉원으로 옮겨 봉안하였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1723(옹정 원년)년 4월 16일 당시 주지였던 기인起仁스님께서 ‘천지를 느낀다고 하는 자들이 절의 우백호 밖 높은 봉우리 별판이 두터운 곳에 설리탑을 옮겨 봉안해야 한다고 궤변을 말하였는데 사람들은 쉽게 이 간사한 말에 동요하였다.’고 하면서 모든 대중과 의견을 공유하고 옛 장소로 옮겨 봉안하였다고 적고 있다.

1765(영조 41)년 3월 19일 당시 주지 창오昌梧스님께서 다시 고봉원으로 옮겼다가 1770년 11월 12일에 주지 승감勝鑑스님께서 현재 위치로 옮겼다. 사고史庫에 ‘물건과 사람이 많아지고 번창하니 그 간에 이리 저리 옮겨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우리 절을 어지럽게 하고 많은 대중을 혼란하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옮긴 기록이다. 옛 장소에서 고봉원으로 옮긴 지 5년여 만에 다시 옛 터로 돌아왔다.

이후 1926년 5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부도를 해체, 무너지는 흙더미를 바로 세우고 석축을 정비하는 등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하였다. 같은 해 9월 3일 사리장엄구를 공개하였는데, 금명보정스님께서 지은 감로탑비에 보면 ‘날날

승탑(사리탑)은
옮겨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사리탑을
이리 저리 옮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 황금색이요, 면면이 상서로운 빛과 영통함이 크게 일었다. 다행히 영골을 참배하니 진정 손으로는 찹추고, 발로는 뛰며 눈썹이 일어나 어깨에 두루 하니 가히 뛰어난 즐거움 아니겠는가.’라고 적고 있어 당시 사리구를 친견하고 느꼈던 감회를 엿볼 수 있는 듯하다.

여기서 잠깐 알아 두고 갈 것이 있다. 1926년 당시 감로탑 정비를 추진했던 스님이 율암찬의 栗庵贊儀스님이다. 자신의 회갑(1927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아 놓은 돈 1,200원(1926년 당시)을 털어 주변 정비공사를 하였다. 그 공덕이 없어질까 두려워 1927년 가을에 여러 스님들의 의견을 들어 ‘불일보조감로지탑佛日普照甘露之塔’이라는 고려 희종이 내린 시호는 위창 오세창이 쓰고, 금명보정金溟寶鼎스님께서 비문의 글을 짓고, 춘곡재영스님께서 글씨를 써서 비를 남겼다.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감로탑과 관련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접어놓고서 지금 힘주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송광사는 초창 이후 지금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 사실만은 옮길 수 없는 진실이 아닐까?

송광사 성보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안내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복권기금문화사업 참여관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주세요.

■ 프로그램



① 솃대 만들기(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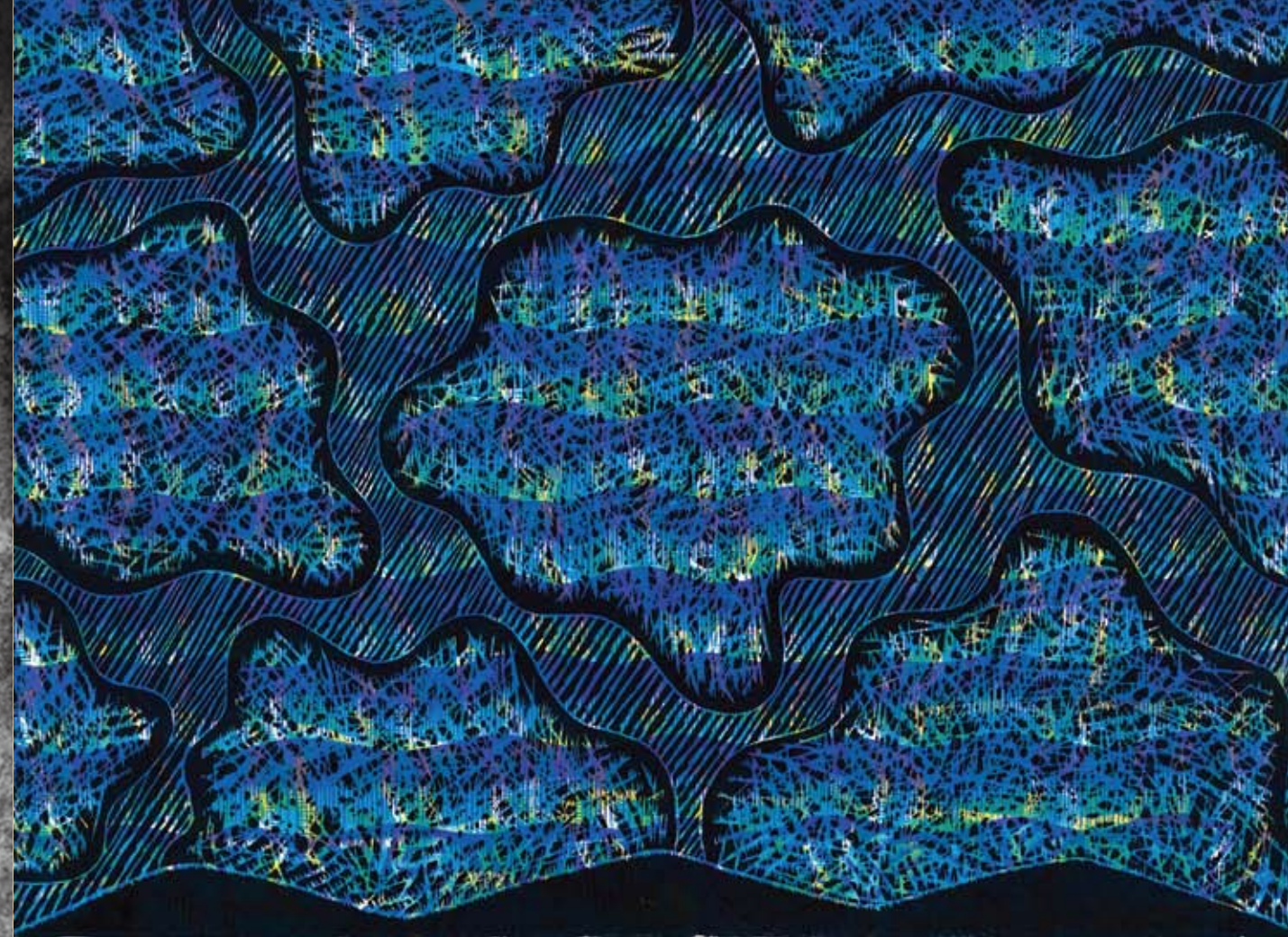
② 내가 만드는 전통 공책

I : 선장 체험 (상시)
II : 책의 변천사 체험 (예약제) - 권자장, 절첩장, 선장

■ 체험일시 : 5월 5일 ~ 10월 31일 (단체는 예약제, 월요일 휴관)
오전 09:00 ~ 10:00 오후 12:30 ~ 17:00

■ 체험료 : 무료

■ 예약문의 : 061) 755-0407
(성함, 인원수, 체험명, 체험날짜, 연락처 만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화
한
숲

푸른 하늘에서
구름이 구름을 만났습니다.
천둥, 번개 일더니,
이내 소낙비 쏟아집니다.
구름은 나보구 쉬었다
가라 합니다.
오늘도 좋은날

몸과 마음 청정하여지이다

- 광주 무등산 약사암 석조여래좌상(보물 제600호)

약사암

빛고을 광주의 진산 무등산이 금년 3월 4일 국립공원 제21호로 지정되었다. 더 이상 견줄 수 없는 이, 다시 말해 부처님을 뜻하는 무등등無等等에서 유래한 무등산은 고려 때까지만 해도 200여 개의 사찰이 산재해 있었다. 새인봉을 오른편에 두고 장불재로 오르는 길 초입에 자리한 약사암도 그중 하나이다. 850년경 철암선사 도운 濶鑑禪師 道允이 처음 지어 인왕사 人王寺라 불렀다 한다. 1094년(고려 선종 11) 혜조국사 慧照國師가 다시 지었고 1960년(고려 공민왕 9) 세 번째 지었을 때에 약사암이라 고쳐 불렀다. 사찰경내지가 모두 광주 문화재자료 제2호이며 보물 제 600호인 석조여래좌상과 창건 당시에 세웠다는 삼층석탑 등의 문화재가 있다.

약사암_ 062-222-9944



사찰경내지 - 광주 문화재자료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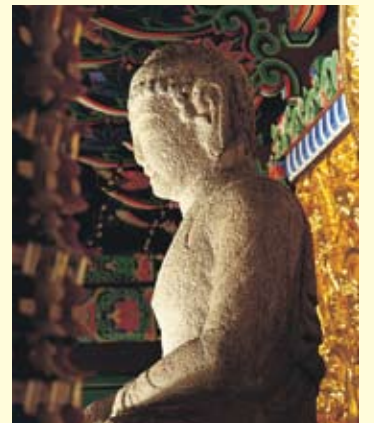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石造如來坐像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으로 보존 상태까지 양호하다. 거친 화강암 석재를 다듬어서 만들었으며, 질병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약사불을 형상화한 것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얼굴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모양이다. 체구는 전체적으로 당당하나 어깨선이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약간 쳐져 보인다. 허리는 가늘게 표현되어 상대적으로 가슴쪽의 양감이 풍부해 보인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입은 옷은 가슴 앞에서 한번 접었고 몸에 밀착되어 상체의 굴곡을 잘 드러내준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손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왼손은 배 부분에 대고 있는 모습이다. 하체는 양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발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앉아 있는데, 무릎이 지나치게 넓어 보인다.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臺座는 전형적인 8각의 연꽃 무늬 대좌인데, 각각 한 개의 돌로 상·중·하대를 구성하고 있다.

유난히 넓은 무릎과 형식화된 표현, 대좌와 불상 높이 비례가 1:1인 점 등에서 석굴암 본존불의 특징을 이어받은 신라말의 불상으로 보인다.



약사암 삼층석탑

약사암 대웅전 앞에 위치한 삼층석탑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탑재들을 모으고 잃어버린 것을 보완하여 복원하였다. 약사암이 창건된 통일신라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먼지를 쓸고 때를 닦으라 拂塵除垢.”

그것은 내 몸에 티끌과 때가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내 몸의 때란 무엇인가. 집착과 번뇌와 속박이다.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다.
그렇다. 이제는 지혜의 빗자루로 집착과 번뇌와 속박을 쓸어버리자.

스님이 향하는 곳에는 언제나 토굴과 소나무가 있었다

사찰생태연구소

국명 : 소나무
과명 : 소나무과(Pinaceae)
학명 :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겉씨식물로 상록교목이다.

소나무의 잎은 길이가 8 ~ 14cm로 2장씩 잎집에 모여 달린다. 꽃은 5월에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서 따로 피는데 가지 끝에 2 ~ 3개의 자주색 암꽃이 달리며 그 아래에 수꽃이 달린다.

열매는 길이 4 ~ 6cm 크기의 구과毬果로 다음해 9월에 완전히 익고, 씨에는 날개가 있다.

솔갱이 절 松廣寺

송광사는 일찍부터 산에 소나무(솔갱이)가 많아 '솔메'라 불렀고 그에 유래해서 송광산이라 했으며 산 이름이 절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선시에 나오는 소나무

충활 : 고려 송광사 승려. 충활이 처음에 남성시 부장원으로 뽑혔다가 이를 버리고 송광사에 가서 도를 닦았다.

파리한 두루미 고요히 소나무에 걸린 달에 앉았고
한가한 구름 가벼워 고갯마루 바람에 쫓기네.
저 속에 면목은 천리가 같으니
어찌 다시 새로 말을 만들어 통 할 수 있으리.

〈한글대장경 138책 동국승니록〉

선사 수행과 관련된 소나무

보문스님은 대둔사의 만일암, 보림사의 내원암, 송광사의 삼일암 등에서 주석하였고 말년에는 담양의 보리암으로 주석처를 옮겨 머물다가 77세 되던 해에 입적하였다. 스님이 세상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듯 새하얀 구름이 하늘에 모이고 바위 위의 소나무들이 이상한 소리로 우는 것이었다. 보문 스님은 본디 세속적 보통사람의 틀을 벗어난 출격장부로서 세상의 이해득실에 연연하지 않았고 고요한 곳에서 수행에만 뜻이 있었다, 따라서 스님이 향하는 곳에는 언제나 토굴과 소나무가 있었고 스님의 행장은 늘 옷 한 벌이었으며 도반은 항시 새 한 마리였다.

〈한글대장경 138책 동사열전〉

소나무의 품성

언종의 정신과 지혜는 숙세의 업이라는 것이 어린아이 때에 이미 밝혀졌다. 부처님을 받드는 믿음이 곧고 엄격했으며 그의 마음은 소나무나 가래나무와 같이 변함이 없었다.

〈한글대장경 217책 속고승전〉

소나무에 얽힌 이야기

한자로는 소나무를 '송松'으로 표현한다.

옛날 진시황이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만났는데 마침 그 곁에 있던 소나무 밑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한다. 그 고마움을 진시황이 공작이라는 벼슬을 나무에 주니 이 일화로 나무 목재자 곁에 공적 공공자를 붙였다 한다.

우리나라에도 속리산 법주사에는 조선시대 세조가 행차할 때 타고 가던 연이 가지에 걸리자 기특하게도 나무 스스로가 가지를 들어 올려 왕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니 이에 탄복하여 정이품 벼슬을 내린 정이품 송이 있다.



◇ 소나무 암꽃



◇ 소나무 수꽃



◇ 속리산 법주사 정이품송

※ 그동안 연재한 '우리 몸 살리는 사찰요리 - 연 요리'를 마치고 새롭게 '경전 속 식물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연 요리를 소개해주신 현중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승보전 벽화

벽에 걸린 글귀가 눈에 띈다.

수조모근행 須早暮勤行 자책해태 自責懈怠

모름지기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여 스스로 게으름을 경책하라.

- <계초심학인문>, 목우자 지눌

삼일수심천재보 三日修心千載寶 백년탐물일조진 百年貪物一朝塵

사흘 동안 닦은 마음 천년가는 보배요, 백년 동안 탐낸 물건 하루아침 티끌이나라.

- <자경문>, 아운 비구

※ 1203년 고려 희종이 '송광산 길상사'를 '조계산 수선사'로 고치고 어필로 사액. 청소골 정혜사와 이름이 겹쳐 조계산 수선사로 개명.

아침에 발원하고 저녁에 참회하는 생활...

지현스님 | 송광사 울주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오직 삼보만을 생각하고 삼보를 이어갈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보살계를 제대로 잘 받은 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내 마음 속에는 등불이 밝혀집니다.

부처님 법은 청정하고 거룩한 법입니다. 청정하고 거룩한 법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몸은 깨끗이 목욕하고 마음은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혼란스러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바닥에 깨진 그릇에 담는다면 담기지 않고 다 새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중하지 않는 것은 새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인 보리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독약이 담긴 그릇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처님 법이 담길 수 없고, 담는다 해도 독으로 변하기 때문에 깨달음과 행복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과 귀를 법사의 입과 딱 맞추어서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또 들었다면 깊이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옳다는 판단이 들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려 어떠한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문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 나는 병든 환자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훌륭한 치료제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나 잊지 말고 내 번뇌라고 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부처님의 아주 훌륭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내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살계를 삼취정계라고 합니다. 첫째 섭율의계 攝律儀戒, 둘째 섭선법계 攝善法戒, 셋째 요익유정계 饒益有情戒. 이 세 가지가 모든 계율을 통틀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섭율의계는 무엇인가. 크던 작던 어떠한 악한 법이라도 악한 법을 전부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갓가지 나쁜 짓을 꿈엔들 하오리까.’ 하는 말씀입니다.

섭선법계는 작은 선이든 큰 선이든 남을 이롭게 하는 선행은 내가 부지런히 실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착하기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하는 말입니다.

요익유정계는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을 전부

부처님의 무의열반의 자리에 올려놓겠다.’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중생이라고 하는 일업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성불 하겠다는 그런 소원이 바로 요익유정계입니다. 만약 부처님처럼 되지 못한다면 번뇌가 남아있고 번뇌가 남아있다면 고통 받는 건데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이 있다면 보살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소원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섭율의계로서 계율을 청정하게 잘 지키며 진실한 말을 하고 밝고 통달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 사부대중을 잘 이끌어 선법으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것은 항상 나누고 나쁜 것은 먼저 가지겠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법을 달라고 하면 법을 설해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재물과 법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모습. 또 어떠한 경우에도 자비로서 집을 삼고 인욕으로 옷을 삼아서 항상 인욕행을 실천하고 언제나 입을

열면 부처님을 찬탄하고 가르침을 찬탄하고 선율을 찬탄하는 삼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오직 삼보만을 생각하고 삼보를 이어갈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보살계를 제대로 잘 받은 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내 마음 속에는 등불이 밝혀집니다. 어두움이 없어지고 더러움이 없어지며 청정해집니다. 그럼 청정한 본래의 불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법을 부지런히 행하면 보배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 내 마음속의 모든 번뇌를 비춰볼 수 있게 되며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이고 또 부처님이 화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전부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부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부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내 몸과 마음에 초라한 허물도 없이 정성을 다해 부처님 명호를 불러가며 꾸준히 절을 하거나, 금강경, 아미타경, 대비주를 읽으며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스스로 부처님에게 조금도 부끄럼 없이 양심을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정성껏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감응을 기다립니다.’ 하면 그 감응을 기다리기 이전에 이미 부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뤄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련법을 오랜 세월동안 정성을 다해서 꾸준히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수

련방법을 정했으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깊이 내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지혜와 자비, 원력을 다했을 때 부처님의 감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또한 부처님의 명호가 내 마음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수련하여 조그마한 번뇌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면 성불하지 못할 것은 없고 이를 수 없는 소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과 행동을 참회해야 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발원을 하면서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핍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수행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속에서 화를 내고 잘못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와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습관의 업을 이기지 못해서 게으름을 부리기도 하고, 남에게 화를 내며 욕심스럽게 남의 것을 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참회합니다. 아침에 발원하고 저녁에 참회하면 어제의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요즘 잔소리가 줄어들었고 그 대신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한 자식들이 ‘부처님을 닮아 가시는 어머니가 편안해서 가까이 가고 싶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

정혜결사의 첫 걸음

이일야 | 전북불교대학 연구처장

거조암 가는 길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는 인물 중에 싸이라는 가수가 있다. 지난해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으로 전 세계를 평정하더니, 올해는 ‘젠틀맨’이라는 곡으로 또 한 번 세계를 열광시켰다. 이 가수의 노래 중에 ‘예술이야’라는 제목의 곡이 있다. 가사가 마음에 들어 가끔 강의에 활용하기도 한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 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노랫말처럼 정해지지 않은 곳을 정신없이 mindless 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때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mindful 일러주는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함께 길을 가는 서로가 의지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길을 가다 지치고 피곤할 때는 서로를 재워주고, 무명無明이라는 잠에서 깨매고 있을 때는 서로를 깨워주며,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서로를 채워주는 삶을 꿈

꾼다.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그런 삶이 진정 예술이 아닐까싶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지눌 당시 고려불교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불교가 ‘정신없는’ 불교라고 느꼈기 때문인 듯싶다. 당시의 불교는 각종 정변에 휩쓸려 승려의 종교적 기강이 해이해졌으며, 선종과 교종은 서로를 일깨워주거나 채워주는 커녕 서로를 헐뜯고 원수처럼 싸웠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눌은 ‘정신 차린’ 불교로의 회복을 온몸으로 외쳤다.

그러나 그 외침이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내적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눌은 그 시간을 창평 청원사, 학가산 보문사 등지에서 보냈다. 치열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말이다. 그 결과 두 번의 큰 깨달음의 샘물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 수행의 공이 무르익어 드디어 결사운동을 실천에 옮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에 자리한 거조암 屠祖庵이다. 지금은 은해사의 말사로 되어있으나, 본래 거조사는 738년에 창건된 유서 깊은



거조암은 오백나한을 모신 영산전靈山殿이 유명한 곳이다. 영산전은 국보로 지정된 전각으로 단청 없는 모습이 오히려 소박하면서도 묘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팔공산의 포근함 속에서 오백나한과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리고 16나한이 함께 머물고 있다.

사찰이다. 은해사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도량인 셈이다.

3시간여를 달려 영천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 넓은 평야를 가득 수놓은 마늘이었다. 그곳에 사는 어느 분께 물어보니, 영천이 마늘로 유명한 곳이라 한다. 마늘은 피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한다. 부와 권력에 눈멀고 선禪과 敎敎가 싸우느라 혼탁해진 고려 불교의 혈관을 맑게 하기 위해서도 마늘과 같은 혈액순환 촉진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역할을 정혜결사 운동이 담당했으니, 결사운동의 첫 걸음을 댄 영천 지역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조암 가는 길에 본사인 은해사 성보박물관에서 때마침 추사 김정희의 현판 전시회가 있다 하여 그곳을 먼저 들렀다. 은해사에서 보관하

고 있는 김정희의 현판 글씨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추사의 글씨에서 묻어나는 기운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 그 감흥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듯싶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은해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거조암에 도착했다. 이곳은 오백나한을 모신 영산전靈山殿이 유명한 곳이다. 영산전은 국보로 지정된 전각으로 단청 없는 모습이 오히려 소박하면서도 묘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팔공산의 포근함 속에서 오백나한과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리고 16나한이 함께 머물고 있다. 두 손을 모은 채 526분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환하게 웃고 계신 나한도 있었고, 조용히 명상에 잠겨있는 나한도 있었다. 모두들 마음의 도적을 물리



526분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환하게 웃고 계신 나한도 있었고, 조용히 명상에 잠겨있는 나한도 있었다. 모두들 마음의 도적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다.



치고 殺賊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다. 지눌이 이곳에 온 것은 그의 나이 31세가 되던 1188년이다. 당시 득재 得材라는 승려가 이곳 거조암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눌과 함께 이곳에서 정혜결사 운동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득재는 지눌이 보제사 담선법회 이후 정혜결사 운동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인물이다. 지눌은 그때 함께 하기로 약속한 도반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대개는 죽거나 병들어 함께 하지를 못했다. 또는 초심을 잃고 부와 권력의 길로 떠난 이들도 있었다. 지눌에게 득재는 초심을 잃지 않고 결사운동을 함께 실천한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것이다. 처음 시작은 미미하였다. 지눌과 득재, 그리고 뜻을 함께 한 서너 명의 도반이 함께 모여 작은 수행공동체를 결성한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으며, 예불과 간경, 운려 등의 수행에 전념하였다. 누가 알았을까? 이 작은 모임이 고려불교를 일대 혁신하고 한국불교의 수행가풍을 확립하리라는 것을 말이다. 이렇게 두 해를 보낸 지눌은 결사운동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눌은 모임

을 갖게 된 동기와 배경, 이념 등을 담은 책을 쓰기 시작한다. 마침내 지눌은 이러한 결사의 취지를 담은 장문의 글을 전국에 반포한다. 그것이 지눌의 중요 저술 가운데 하나인 <권수정혜결사문 勸修定慧結社文>이다. 지눌의 나이 33세 때의 일이다. 흔히 <결사문>이라고 불리는 이 저술을 통해 지눌은 '정신없는' 불교에서 '정신 차린' 불교, 즉 마음 닦는 불교로의 일대전환을 역설하고 있다. 이 저술은 무명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정신 없이 사는 우리들에게 정신이 번쩍 뜨일 수 있는 말로 시작한다.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는 땅으로 인하여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 땅으로 인해서 넘어진 因地而倒 사람이 기댈 곳은 아무리 찾아봐도 땅밖에 없다. 허공을 짚고 일어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땅을 짚고 일어나는 因地而起 길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길을 가다 땅에서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다리도 아프고 무릎에 상처도 생길 것이다.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땅에 앉아있을 수는 없

다. 정신을 차리고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그 래야 길을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눌의 눈에 비친 당시의 고려불교는 땅에서 넘어진 상황과 같았다. 그러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 정신없는 모습이 종교적 기강의 해이로 나타나고, 선과 교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넘어지거나 짚고 일어나는 그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땅에서 넘어졌으니 전도된 삶, 중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迷心 정신없이 mindless 사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고려불교의 타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음이라는 땅에서 넘어졌다면 일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마음이라는 땅을 짚고 일어나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두운 마음을 迷心 환히 밝히는 것 悟心이다. 정신없이 사는 삶에서 정신 차리고 사는 삶으로 일대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부처되는 일 이외에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지눌은 마음을 떠나 부처 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눌이 거조암에서 펼친 정혜결사 운동은 바로 땅에서 넘어진 고려불교를 땅을 짚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음 닦는 불교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마음을 닦지 않고 부와 권력과 같은 외적인 것에만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땅에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시선을 안으로 돌려 마음 닦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바로 결사운동이다. 지눌의 정혜결사를 수심결사 修心結社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혜결사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자 이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승려들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많이 있었으며, 유교와 도교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거조암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결사운동의 취지에 공감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지눌의 <결사문>을 읽고 감동하여 한 걸음에 달려온 이들도 있었다. 그들을 감동하게 했던 <결사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다음 호에서 만나보기로 하자. ☺

쉰 즈음에

중현 | 송광사 총무국장

계곡의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적막한 산사의 밤. 마루에 홀로 앉아 김광석을 들고 있다가, 검은 산 위로 희끗희끗 누워있는 밤구름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이미 떠나가 버린 청춘인지라, 서른 즈음에 무슨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었는지, 어떤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 기억이 흐릿하다. 대신 적막한 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 못 이루고 장마로 눅눅해질 대로 눅눅해진 마루에 홀로 앉아 있는 자신을 바라본다. 노랫말 중에 ‘청춘’을 ‘인생’으로 바꾸니 딱 지금 내 모습이다. 어찌면 쉰 살 고개를 넘고 있는 내 또래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뽕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네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하루하루가 내게로 무겁게 다가와서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제, 그제, 사흘 전의 그날, 일주일 전의 그날이 서로서로 기억 속에서 뒤섞여서 도무지 분간이 되질 않는다. 언뜻 생각해 보면 그 날이 그날 같아서 같은 날이 계속 반복되는 듯하다. 하지만 희미한 기억 속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 술한 날들도 바로 ‘오늘’이었던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화를 내기도 했고, 불안해 하기도 했고, 지금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일로 즐거워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마음 설레기도 했다.

그렇게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하루가 내게서 멀어져 간 것이다. 뒤돌아보면 길고도 긴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앞을 보면 일 년 전, 몇 달 전, 며칠 전, 아니면 어제 보았던 바로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나는 지금 이 순간, 목적지도 없는 인생길을 하염없이 걸어간다. 변하지 않는 풍

경, 반복되는 고민, 갈등, 번뇌, 기쁨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전거가 제 힘으로 서있으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하듯, 인생도 머물러 있는 듯 하지만 한순간도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추면 그 자리가 곧 나의 묘비가 설 자리이다.

계절은 다시 돌아 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 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 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만약 당신이 지나간 사랑의 끝에서 자기 자신을 만났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이란 자신에게로 가는 멀고도 먼 여행길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의존적인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나 아닌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은 내가 아니기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생각하고 행동해 주지 않는다. 설령 내 배 아파 낳은 나의 분신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의존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면 이미 이별을 품고 있는 법이다. 그러기에 내가 떠나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떠나오지도 않았건만, 내 사랑은 나의 바람을 야속하게 저버리고 나를 떠나 버린 것이다.

젊은 시절, 그렇게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했던 그 사랑을 지금에 와 돌이켜보니 육신을 통하지 않고도 서로의 영혼이 교감할 수 있는 소울메이트 같은 것이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만나려면 자신을 버려야만 한다. 거짓된 나를 버려야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법이요, 작은 나를 버려야 커다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법이다.

소울메이트는 다름 아닌 자신이다. 인생이란 자신을 찾아 에둘러 돌아가는 멀고도 먼 여행길이다. 인생길에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만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중현스님

1998년 송광사에서 범일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송광사 강원을 졸업하고 제방에서 정진.
현재 송광사 총무국장.



편리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사찰

순천송광사 보유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사찰 종합정비를 위한 간담회



6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송광사 사자루에서 주지스님과 현봉스님을 비롯한 사중소임자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CPN 문화유산 이재호 대표의 사회로 (전)문화재위원 김동현 박사, 동국대 홍광표 교수, 단국대 엄기표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 정광용 교수,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장 황평우, 문화재위원 덕성여대 최성은 교수,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임동훈 위원, 보존정책과 김철주 위원, 고경남 위원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송광사 주지이신 무상 스님은 승보종찰 송광사의 숙원 사업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격에 걸맞은 산문의 신축 및 사찰 진입 영역의 종합정비이다. 송광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삼대사찰이면서도 진입로 일대에는 송광사 입구라는 표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산문을 신축함과 더불어, 십리 벚꽃길로 잘 알려진 기존의 진입로 양측의 벚꽃을 보호하고 버스의 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이를 위해 십여 년 전 중단된 도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후원의 확충이다. 행사나 성지순례 방문



이 있는 날이면 지장전까지 식사를 기다리는 줄이 이어지고, 사자루와 후원 앞 마당에 임시 배식대가 설치되는 등, 비좁은 후원은 송광사의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종무소와 직원 숙소 구역의 지하에 최대 300명 ~ 500명까지 수용하는 식당을 신축하여 기존의 종무소 구역을 후원 영역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셋째, 송광사 계곡의 종합적인 정비이다. 송광사 계곡의 재해방지를 위해서 수석정 앞, 불일 서점 옆 징검다리 아래, 다송원 앞 다리 등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고장난지 오래여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송원 앞 다리는 큰비가 내리면 상승적으로 범람하고, 징검다리가 범람하여 서점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게다가 계곡 주변의 축대가 이미 붕괴되었거나, 토사와 바위가 흘러내려 붕괴의 위험에 직면한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광원암의 현봉스님은 주지스님의 구상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송광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스님들의 생활공간, 수행공간, 신도들의 수행공간, 문화공간 등이 혼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각각의 효율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임동훈 위원은 송광사의 특징 중 하나로 높은 건물밀집도를 언급하고 소방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송광사 자체의 적극적인 소방훈련을 강조하였다.

단국대 엄기표 교수는 사찰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추구하는 편리성과 사찰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선호하는 전통의 고수가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어 불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산문의 신축이 최대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벚꽃길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화엄과 선차문화 해동 땅에 전해

보림사, 원표대사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개최



◇ 보림사 '원표대사 국제학술대회 및 선차문화교류회' 현대의식.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선문을 연 장흥 가지산 보림사 개창주 원표대사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전남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 스님)는 지난 6월 2일 경내에서 '원표대사 국제학술대회 및 선차문화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송광사 회주 법흥스님, 중국 수성사 주지 짜에룽스님, 전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 등 한·중 스님과 불교학자, 불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견해를 발표했다.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보림사 주지 일선스님은 먼저 원표대사의 행적을 소개했다.

보림사를 창건한 원표대사는 천보연간(天寶年間, 724~756)에 중국 땅을 밟은 뒤 다시 부처님의 땅 인도를 찾아 심왕보살의 안내로 '화엄경' 80권을 짚어지고 돌아와 푸젠성 영덕 지제산 나라암굴에서 수행을 했다. 특히 지제산에서 움막을 지은 뒤 나무열매의 액체를 마시고 수행했으며 그 나무가 바로 차나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청태전 체험 인사말을 하는 보림사 주지 일선스님.

원표대사는 그의 고향으로 알려진 장흥에 보림사를 창건하고 불법을 펼치다가 열반에 들었다.

원표대사 국제학술대회는 전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이 '보림사의 창건설화와 원표대사'란 주제의 논문발표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다.

이어 △천관보살 신앙과 지제산(중국 화엄사 주지 혜정 스님) △선차 문화 동전 이론 원표 대사(최석환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장) △푸젠 다퉈 나라암 '나라암비기' 탁본(박현규 순천향대 중문과 교수) △신라하대 원표의 화엄사상 특징(이희재 광주대 중국학과 교수) △원표와 체징을 통해본 장흥 보림사(공중원 언론인) △고려 차생산의 중심지 변동과 보림사의 위상(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등 논문이 소개됐다.

일선스님은 "보림사의 차가 유명하지만 차 법제가 사라지고 없는데 원표대사가 수행한 중국 화엄사에 제다법이 남아있어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개산 이래 처음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원표대사가 이룩했던 선차문화의 동전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고 한·중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 될 것"을 기대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 앞서 장흥군은 보림사 경내에 슬로푸드 전시 및 슬로시티 부스를 마련하고 청태전과 녹차체험, 중국전래 원표대사 차만들기 시연, 전국 차인 들차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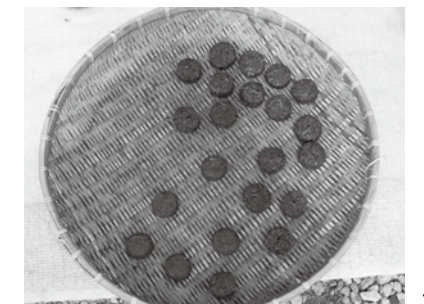
◇ 학술대회 참석자들에게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



◇ 슬로시티 부스에서 전국 차인 들차회를 개최했다.



◇ 청태전 체험을 하고 있다.



◇ 청태전



01. 호국영령 추모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7일 오전 10시 30분, 송광사 사자루에서 호국영령 추모 천도재를 봉행하였다. 주지 무상스님을 비롯한 사중 어른스님들과 선원, 강원 등 송광사 대중스님, 조춘태 순천 보훈지청장과 각 유족대표, 유가족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호국영령을 추모하였다.



01

02. 체육인불자 장학금 수여식

6월 10일, 체육인불자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100만원 1명, 50만원 5명, 총 6명 도합350만원을 수여했다. 수여식을 마친 뒤 대웅보전에서 기념사진 및 포교국장 각안스님과의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02

03. 불일학당 1기 정기 모임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송광사 템플스테이 세심당에서 소임자 스님, 학당 1기 25명 등이 모임을 가졌다. 주된 내용으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2시 30분 종무소 옆 큰 방에서 정기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들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불일학당 1기 졸업생들의 사이버 공간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04

04. 교구본사 종무 실장회의

6월 14일 오후 4시, 송광사 템플관에서 교구본사 종무 실장회의를 열었다. 15명의 종무실장이 참석하여 법인법, 사찰운영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승려복지회 구성안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



05

05. 회광당 승찬대선사 추모법회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총림 전 방장이셨던 회광 승찬 대선사의 17주기 추모법회가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방장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06. 인애원 송광사 방문

강원 대교반 스님들께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인애원에서 송광사를 방문하였다. 인애원 식구들은 송광사의 유서 깊은 역사와 전각들을 보며 마냥 즐거워하였다. 사찰 답사를 마친 뒤 대웅보전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06

※ 주지임명장 수여

6월 10일, 화순 만연사 주지에 자공스님, 목포 길상사 주지에 현문스님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 만연사 주지 자공스님



◇ 길상사 주지 현문스님

※ 7월중 행사

1. 7월 7일 - 2교구 중회가 7월 7일 오후 2시 송광사 사자루에서 있을 예정이다.
2. 7월 1일 ~ 9월 1일 -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제1회 신인작가 5인 릴레이 작품전'이 7월 1일부터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 062-383-0108)

송광사 초하루기도법회

매월 초하루 순천지역 버스운행시간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운행시간표 8:30 조은프라자 맞은 편 주유소 앞 → 8:40 순천역 → 8:45 공용터미널 → 9:00 순천대 → 9:10 선평삼거리 동산초교 앞 → 9:40 송광사

※ 법회 후 버스 출발 시간 : 다송원 앞 오후 1:30



송광사 소식 - 교구 말사

01. 광주 무각사 증무행정학교 총무기획실무과정 전라지역 교육 시행

지난 6월 13일, 광주 무각사에서 증무행정학교 총무기획실무과정 전라지역 교육이 시행되었다. 교육에는 송광사, 백양사, 대흥사를 비롯한 23개 사찰에서 32명의 증무원들이 참석하여 '문서작성과 관리', '사찰의 행사기획', '사찰 홍보 이렇게 하자'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향후 9월 26일에는 증무행정학교 재무회계실무과정이 광주 무각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1

02. 보성 대원사 국민멘토 헤민스님, 대학생을 위한 힐링캠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광주·전남 전법단이 주관한 2030 세대를 위한 '힐링캠프'가 대원사에서 진행되었다. 22일 60여 명의 참가자로 시작한 마음치유 캠프는 23일 아침 치유명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오전 10시 진행된 공개강좌에는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후, 헤민스님은 순천사암연합회에서 주최한 힐링 콘서트(6.23. 오후 5시)에 참석했다.



02

송광사 소식 - 성보박물관

01. 6월 24일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과 업무 협정체결

송광사 박물관(관장 고경스님)은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관장 강성호)과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정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박물관교육과 전시, 불교문화연구, 지역 전통문화 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정식에 송광사 총무국장 중현스님과 포교국장 각안스님이 함께 했으며, 국립순천대학교 이금옥 기획처장과 김권욱 과학교육영재원장, 교수불자회 신동영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01

업무 협정에서 강성호 관장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삼보사찰의 하나인 승보종찰 송광사와 교류협력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송광사의 우수한 불교문화유산과 국립순천대의 탁월한 인문학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지역시민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경스님도 "지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국립순천대박물관과 협력하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송광사 소식 - 성보박물관

송광사의 불교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정을 기념하여 고경스님은 <송광사의 역사와 문화재>라는 주제로 문화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 강좌에서는 보조국사를 비롯한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의 훌륭한 역사와 국보와 보물급 불교문화재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02. 6월 1일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지원사업 에듀케이터 채용

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사립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및 교육현장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하였다. 송광사박물관에서도 협회의 지원을 받아 김형준 교육사를 채용하였으며,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송광사의 역사와 문화교육, 전통 체험프로그램 업무를 시작하였다.



03

03. 6월 6일 목포 성덕원생 60명 송광사 방문 체험

2013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박물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리관은 목포 성덕원생 60명을 초청하여 송광사 안내와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인 '소원을 빌어봐-숫대만들기'를 진행하였다.



03

04. 6월 15일 전남 동부권 학생 송광사 방문 체험

전라남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순천대학교박물관에서 진행한 전남 동부권 초·중학생들 80명의 송광사 방문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라운 역사문화탐방'으로 총 6회로 진행되는데 송광사 방문이 그중 3번째 행사였다. 송광사의 역사와 문화재를 알아보고 복권기금 지원프로그램인 '내가 만드는 空冊-선장'을 진행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책의 역사를 알고 직접 자신의 책을 만들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04

05. 6월 21일 강진 고대문화와 월남사지 학술세미나 참석

한국고대학회와 민족문화유산연구원(원장 한성욱)이 주관하고 강진군이 후원한 '강진 고대문화와 월남사지' 학술세미나가 있었다. 월남사지 1차 발굴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강진의 고대문화와 불교, 월남사지의 역사적 위상 등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종합토론 시간에는 월남사지 발굴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앞으로 월남사지와 관련되어 다방면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 스님과 부모와의 만남, '내 마음 들여다보기' 체험



6월 11일 화요일.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와 해를 피하고 싶은 날씨가이다. 햇볕은 쨍쨍 뜨겁지만 화사한 오전시간, 우석어린이집이 북적거린다. 오늘은 우석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이 있는 날이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작지만 뜻 깊은 강연회가 준비되어 나름 기대와 설렘이 보인다.

오늘 강연은 '내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송광사 총무국장 중현스님과 함께 한다. 스님과 함께 하니 선생님도, 부모님도 더 기대를 하게 된다.

중현스님과의 만남은 어린이집 2층 감각 통합실에서 준비되었다. 스님과 부모님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누는 잔

잔한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중현스님은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면 모두가 허망하며 부질없는 것이고 그 마음속 행복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신다.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곳만 쳐다보며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와 환경만을 바라보고 동경한다면 늘 만족스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신다. 행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라고.

참석하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장애아 자녀를 가진 분들이다. 스님은 내 아이가 장애를 가져서 혹여 그것을 나의 탓이라 여기거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 아이는 왜 일반적이지 않는지 등 많은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마음을 다치고, 주변의 시선에 상처 받음을 알고 계신다. 커다란 말씀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독이시며 치유해 주시는 것 같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평화로워

진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하는 감사함에 마치 부자가 된 것 같다. 중현스님의 말씀처럼 행복은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곧 행복인 것 같다.

행복을 이야기하시는 중현스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났다.

스님은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첫 단계이며 나 자신과의 소통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마음자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도 하신다.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부모님 마음에도 진한 여운으로 남을 것 같다.

중현스님의 강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한번쯤 들여다보고 마음속 행복을 찾아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함을 느껴본다.

스님과 나누는 이야기 시간이 끝났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스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인가 보다. 더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힘찬 출발을 해야겠다.

<우석어린이집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월 5,000원 이상)

- 각종 교육프로그램 진행비용 (캠프, 사회적응훈련, 현장학습)
- 원내 시설보완 (실외놀이터 등)
- 아동들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 치료물품구비

후원계좌: 농협 615011-55-000708 (우석어린이집)

문의: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775-1번지
☎ 061-751-0877,8

우석어린이집 자원봉사 설명회



송광사가 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우석어린이집은 장애아 비장애아의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행을 통하여 불자다운 삶을 실천해보고자 우석어린이집 자원봉사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 일 정 : 2013년 07.11.(목) 오후 3시
- 장 소 : 순천 우석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선평리 775-1)
- 문 의 : ☎ 061-755-0108
- 담 당 : 교무과장





사천왕상 개채 및 복장물 조성 불사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 2013년 6월 동참자 명단 (2013.5.19 ~ 6.20)

강동선	김명수	김요안	김현호	소정선화	정수진	조상우	한창훈
국태광	김민경	김우신	나종화	원여래심	정심스님	조승기	허 곤
권필수	김민선	김중표	박상지	윤 진	정지민	조승완	허윤희
김기영	김민주	김태영	박성규	장영숙	조민성	주광희	허준호
김낙삼	김성모	김태정	소점순	장중수	조민수	최승희	

동참계좌 국민은행: 783601-01-439721(예금주:송광사) 우체국: 501676-01-002123(예금주:송광사)

관음전 신규 인등회원 명단 2013.5.19 ~ 6.20

2799	강정운	2809	김재훈	3190	문철호	3205	서대철	3237	임소영
2800	강지운	2834	김주환	2823	박경도	2088	오흥수	2891	조혜진
2798	김동효	2810	김지희	3098	박근욱	2375	이승록	3231	지진구
1033	김보람	1594	김태한	3099	박근형	3029	이유진	3158	최우진
2833	김수환	1593	김태현	2918	박현지	3019	이윤비	2984	최윤영
1573	김수환	2184	류혜진	2901	배갑주	3028	이주엽	3159	최현진
1574	김영주	3189	문영배	1032	변영준	1535	임소연	3157	최현진

인등접수 송광사 기도접수처 061-755-5306 우체국: 501676-01-000520(예금주:송광사)

정기구독회원제 변경 안내

효율적인 회원 관리를 위하여 2년 및 3년 회원 제도를 폐지하고, 1년 회원으로 통합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1년 회원만 유지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안내

1년 회원에 가입하시면 한 해 동안 거르지 않고 월간 「송광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국내에서는 어느 곳이나 똑같이 20,000원이며, 우편요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가입신청 및 회비 납입 방법

온라인 전화 및 팩스로 구독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은행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501676-01-001432 (예금주: 송광사)

신규신청 주소변경, 배달 사고 등 송광사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월간 「송광사」 편집실 전화 061-755-0107~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www.songgwangsa.org

월간 「송광사」 편집실 | 우편번호 540-933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 안길 100
전화 061-755-0107~9 팩스 061-755-0408

2014년 수능 백일기도 및 칠석 기도

송광사 관음전은 구한말 고종황제의 천수강녕과 종묘사직의 만세영창을 빌었던 원당으로 그 영험가피가 두텁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송광사를 복원하기 위해 천일기도를 올리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도 조석으로 향화가 끊이질 않으니, 이 수승한 도량에서 자손만대 수명장원 부귀영화를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 수능 100일 기도 (관음전)

• 기간: 2013.07.31. ~ 11.07.(음06.24. ~ 10.05.) • 동참금: 10만원

○ 칠석기도 (관음전)

• 기간: 2013.08.13.(음.07.07.) • 동참금: 3만원

우란분절 백중기도



목련존자의 구모생천에서 유래한 우란분절은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대중스님들의 수행력으로 선망부모와 조상천도를 발원하는 지장전 용맹기도를 실시 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백중기도 (지장전)

• 기간: 2013.08.14. ~ 08.21.(음07.08. ~ 07.15.)
• 동참금: 생축기도 가족 당 5만원, 영가 1위당 1만원 추가

기도동참계좌 _ 우체국 501676-01-000520 (예금주: 송광사)

기도동참문의 _ 송광사 기도접수처 061-755-5306